

# 제24회 생글논술경시대회

## 고1 공통 유형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용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취업과 실업, 대학입시, 사교육, 급식, 노인복지, 의료보험, 심지어 출산율까지 우리 생활의 어느 부분 하나 정치적 결정과 관련 없는 영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감시하고 또 정치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일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경쟁하는 '그들의 장'일 뿐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은 국민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정보의 소통 과정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집단 지성의 출현이다. 집단 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동원되는 지성을 말한다. 지식의 공간 프로젝트는 "너 자신을 알라"를 포함하며, 그것을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아는 법을 배우자"로 확장시키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일반화시켜 "우리는 함께 집단 지성을 이룬다. 고로 우리는 뛰어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부른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에서 "우리는 생각한다."로 넘어가는 것이다. 일종의 불분명한 마그마 속에 개인의 지성들을 혼합하는 것과는 달리 집단 지성은 특이성들이 성장하고 구별되며 상호 부양하는 과정이다. 능력, 기획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식의 공간에서 맺는 관계들에서 떠오르는 유동적 이미지는 집단에게 있어 긍정적이고 생동감 넘치고 열려 있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양태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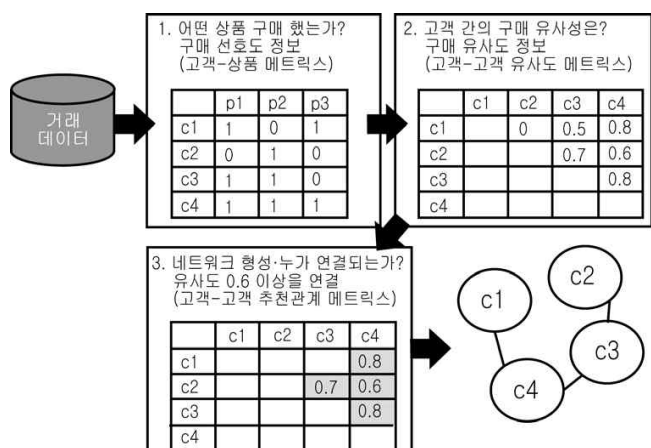
<나>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직업상 아마존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책 추천의 정확성에 감탄한다. 실제로 10년 전 어느 날 아마존에 접속했다가 사이트에 추천된 책들의 목록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화면을 갈무리했다가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강의의 자료로 사용하곤 한다. 첫 페이지에서 아마존은 15권의 책을 추천했는데 그중 8권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책이었다(이미 구매하지 않았다면 아마존의 추천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4권은 원래부터 사려고 버려던 책이었고, 2권은 출간된 줄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당연히 사야 할 책이었고, 1권은 필자가 신문에 서평까지 썼던 책이었다. (중략) 이쯤 되면 그 추천의 정확성에 감탄하는 정도를 지나 경악하게 된다. 설사 그들이 흥신소를 동원해 필자의 뒤를 추적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머릿속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정확성의 배후에도 협업 필터링이라는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 내가 아마존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그동안 내가 구입했던 책들의 목록을 모두 꺼낸다. 다음에는 역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전 세계 이용자 중 내가 샀던 책들과 똑같은 책들을 샀던 사람들을 추려낸다. 다음으로 내가 아직 사지 않은 책들 중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산 책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게 추천하는 것이다. 책을 무작위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만의 관심 분야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내가 샀던 책들을 모두 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책이라면 나도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존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다>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트위터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다거나 혹은 트위터의 힘으로 선거 같은 커다란 정치사회적 사건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실제로 트위터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2011년 4·27 재보선에서 20퍼센트 이상 차이를 보이던 후보들의 당락을 바꾸어 놓았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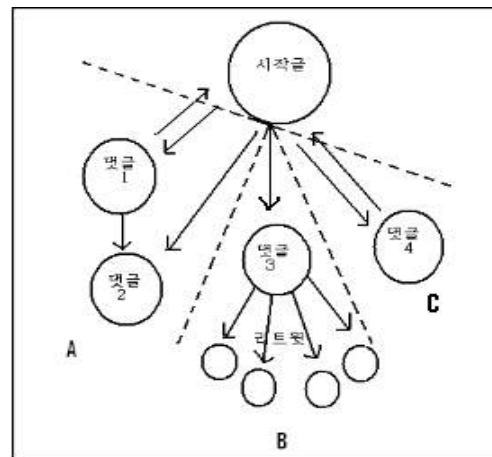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트위터가 만들어내는 소통의 네트워크 구조를 생각해 보면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이용자는 2010년 지방선거 무렵 약 113만 명, 2011년 4.27 재보선 무렵 약 280만 명, 그리고 2011년 10월까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용자 수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다. 트위터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통하고 싶은 상대를 골라 '팔로우' 버튼을 누르고 그 순간부터 상대가 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들을 받아본다. 상대가 쓰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팔'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다. 또 상대가 쓰는 글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판단되면 '리트윗' 버튼을 눌러 나의 팔로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한다. 트위터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url 링크 기능이다. 140자 이내로 써야 하는 SNS의 특성상 긴 이야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url 링크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진, 언론 기사,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끝으로 해시태그 기능을 들 수 있다. 같은 사안의 트윗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글 끝에 #으로 시작하는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줌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볼 수도 있다.

[문제 1] <그림 1>와 <그림 2>을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집단지성'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 (800±100자)

<그림 1> 아마존의 상품 추천 방식



<그림 2> 트위터의 토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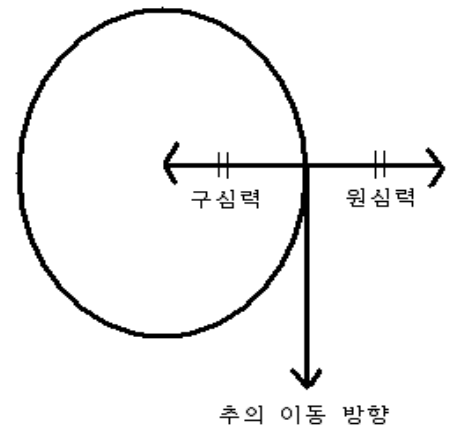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우리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원심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이다. 원운동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이다. 즉,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원운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방향이 달라지는 등가속도 원운동이 나타난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받는 힘은 만유인력이 롤러코스터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접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의 운동을 계속하려는 관성과 합쳐져서 원운동이 진행된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관성력으로, 회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관찰된다. 하지만 다른 관성력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다. 가속하는 영역 내의 물체들은 관성에 따라 운동하려 하기 때문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는 반대 방향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힘이 관성력이다. 원심력은 관성력 중에서도 회전 영역 내에 존재하는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실제적으로 관성계에서 물체는 관성에 따라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나 원운동하는 좌표계는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원운동하는 영역 안의 관찰자는 물체가 마치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롤러코스터가 회전의 정점에 있을 때, 롤러코스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중력과 구심력의 합력에 해당하는 원심력을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원심력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다. 외부에서 힘이 계속해서 가해진다는 조건 하에서 이들 대칭적인 두 힘의 작용으로 물질의 원운동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례는 지난 2002년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2202헌가1)이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다 대법원에서 2004년 7월 15일에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동일한 법조에 대하여 2011년 8월에 다시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 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규정하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 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기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양심의 자유 이전에 국방의 의무 이행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방(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현대 정치에는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가 약자로 등장한다. 예컨대 여성, 유색인, 이민족, 외국인 노동자, 소수파 신앙인, 동성·양성애자, 특정 이념 신봉자 등 이들 약자가 현대 정치에서 차이를 구성한다. 강자의 차이가 근대 정치를 확립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고안했던 반면, 약자의 차이는 현대 정치 체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략)

차이를 무시한 현대 정치는 각 집단 간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지배 집단은 자신의 경험, 문화, 사회적 능력과 상이한 차이 집단에게 끊임없이 불이익을 가한다. 둘째, 지배 집단은 사회적인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인간성을 가정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지니는 자체의 집단 특수성을 알지 못한다. 셋째, 이미 단정된 중립적인 표준에서 이탈한 집단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가치 폄하하게 한다. (중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적 공공선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느 국가나 사회에도 공공선은 존재해왔다. 공공선은 차이 집단이 동의하기 이전에 이미 지배 집단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차이 집단은 공공선을 만들 때 초대받은 적도 없고 논의에 참가한 적도 없다. 어느 차이 집단도 동의한 적이 없는 공공선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으로서 차이 집단에 강요된다. 공공선의 지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차이 집단의 가치는 무력화되고 파편화된다. 차이 집단의 입장에서 공공선은 부정되어야 할 가치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차이의 정치는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가 인정되기를 바라고, 고유한 가치의 실현을 요구한다. 어떤 차이 집단도 자신의 가치가 폐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차이의 가치 실현이 요구되면 될수록, 그 사회의 공공선은 힘과 구속력을 잃게 된다. 국가적 관점에서 정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차이의 가치는 부정되어야 할 사소한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강요된 우리’에 희생된 ‘그들’ 그리고 ‘나는 나’와 ‘너는 너’ 공공선과 차이의 가치 대립은 이와 같다. 사회 전체의 공공선이 강조되면 차이가 억압당하고, 차이의 가치가 강조되면 공공선이 부정된다. 새로운 대안은 이와 같은 대립을 피하고서 차이의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공공선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구성한 ‘우리’라는 공공선의 지향적 담론을 창출해야 한다. 공공선의 지향은 이미 만들어진 공공선이 아니다. 공공선의 지향은 차이의 주체들이 스스로 공공선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만들어지는 공공선은 과거의 공공선과는 다르다. 공공선 지향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해체의 경향을 극복하고서, 현존 정치 사회에서 차이가 그 정치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내용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황을 분석하시오. (800±100자)